

소방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

자료/내무부 제공

국민의 화재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, 취약분야에 대하여 소방업무를 중점개발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실시한 소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.

1. 조사개요

가. 기간 : '89. 3. 10~3. 30(20일간)

나. 조사지역 및 표본수

① 지역 : 3개지역 9개시

- 대도시지역 : 서울, 부산, 광주
- 중도시지역 : 수원, 청주, 전주
- 소도시지역 : 동해, 상주, 서귀포

② 표본수 : 총 2,669명

〈지역별〉

| 구분 \ 지역 | 계 | 대도시 | 중도시 | 소도시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배부 | 2,931 | 1,403 | 1,120 | 405 |
| 응답 | 2,669 | 1,317 | 1,040 | 312 |
| 응답률(%) | 91 | 94 | 93 | 77 |

〈계층별〉

| 구분 \ 지역 | 계 | 공무원 | 근로자 | 주부 | 지역주민 | 학생 |
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
| 표본수 | 2,669 | 390 | 690 | 309 | 959 | 321 |
| 비율(%) | 100 | 15 | 26 | 12 | 34 | 13 |

다. 조사방법 - 설문지법

① 조사요령

- 단체 : 소방간부 현지 방문조사
- 주민 : 주민등록부상의 무작위 추출에 의한 우편발송 조사

② 조사내용

- 문항수 : 24개 문항(선택형)

• 주요조사 항목

- 소화기 사용법 숙지사항
- 소방교육 및 훈련사항
- 화재시의 대비태세
- 소방업무에 대한 인식도

2. 조사결과 활용

- 소방시책수립의 효과적인 방안 모색
- 대국민 소방홍보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

3. 총 평

가. 화재대비 태세

① 평소 가정에서 화재대비 태세를 알아보기 위한 물음에 사용후 중간 가스밸브 잠금이 58%, 전기와 기타 화기취급단속이 36%~39%의 응답을 보였으며, 지역별로는 중도시가 타지역보다 화재대비 태세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계층별로는 주부가 사용후 가스중간밸브 잠금이 70%, 화기 사용시 자리를 지킨다가 45% 등 가정에서 화재에 대비한 행동을 비교적 잘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

② 가정에서 초기소화에 대한 준비로는 소화수 59%, 소화기 25%로 전체의 84%가 초기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나. 소화기 사용법

①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4%로 소화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, 주부와 공무원층은 「모른다」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9%, 25%로 나타났으며

② 소화기 사용법을 알게 된 동기는 「교육훈련」이 58%, 「소화기 취급설명서를 읽고」 24% 등으로 나타나 교육·훈련 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, 「실제 사용해 보았다」의 응답은 4%에 불과하였다.

다. 소방훈련

① 소방훈련 경험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「민방위 훈련시마다」가 22%, 「연1~2회」가 42%, 「3년에 1회」가 11% 등 73%가 훈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, 공무원 33%, 주부 28%가 훈련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, 소도시지역 주민의 경우 31%가 무경험으로 응답하고 있어 소방훈련이 기업체와 고층건물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② 훈련받은 내용은 「소화훈련」이 59%로 소방훈련이 주로 소화훈련 위주임을 알 수 있으며 인명안전을 위한 피난훈련 및 통보 연락훈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.

라. 소방상식

① 소방상식 측정을 위한 화재 및 구급신고 전화번호 물음에 대하여 95%가 올바르게 답변해 비교적 양호하나, 주부 18%, 공무원 5%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, 대도시지역도 약 10% 정도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② 화재발생 주요원인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비율은 국내화재통계의 순위와 같았으나 「전기시설 불량」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은 전체 평균 42%로 나타났으며, 계층별로는 공무원의 경우 「전기시설 불량」이라고 33%가 응답한 반면, 43%가 「가스·유류취급 부주의」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가시적인 느낌에 따른 응답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.

마. 홍보효과

① 홍보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에서는 TV,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75%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이 표어·포스터로 나타나고 가두캠페인 등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바. 화재발생 및 사례전파

①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절대다수(80%)가 부주의와 무관심에 기인된 것으로 응답하였고

② 화재경험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전체의 28%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, 경험자의 86%가 사례전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사. 화재시 행동

① 화재시 행동요령에 있어 「통보연락 및 소방관서 신고」가 전체의 80%이며 「소방관서에 신고한다」가 소도시 52%, 계층별로는 학생 45%, 주민 42%로 소방관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아. 소방업무에 대한 인식도

① 소방관서가 하는 업무에 대하여 「화재진압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」이라고 올바르게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9%이며, 지역별로는 중도시가 61%로 높게 나타났고 계층별로는 근로자가 67%로 높은 반면 주부는 49%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.

② 구급업무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 84%이며, 주부 계층의 인식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.

③ 구급차 이용경험자는 18%이며, 이용자의 39%가 「신속하게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다」에 응답한 반면 「무료봉사 때문」이라는 응답은 4%에 불과하였다.

자. 소방서의 위치 및 현안사항

① 관할소방관서의 위치에 대한 물음에 범위가 좁은 소도시지역이 「위치와 명칭을 다 안다」가 65%로 높고 계층별로는 공무원과 주부가 위치나 명칭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② 시민안전을 위해 우선 해야할 과제는 소화전, 소방도로개설과 소방장비 확충이 전체의 63%로서 시설장비 확충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.

차. 소방공무원의 태도

① 소방관서 방문 또는 전화문의 경험이 「있다」고 응답한 사람은 26%에 불과해 소방관서의 대민 접촉업무가 제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

② 업무수행 태도에 대하여는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 58%(1,549명) 중 「친절한 편이다」라고 응답한 것이 71%, 「그저 그렇다」 14%, 「불친절하다」 3%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. ㉞